

최은아 전주교대 교수, 음악교육학회장 취임

전주교육대학교 최은아 교수(음악교육과)가 한국음악교육학회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한국음악교육학회는 1966년에 음악교육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을 통해 한국 음악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교육 관련 공산단체다.

특히 음악교육의 연구와 실천에 관련된 공식적·비공식적 음악교육의 제반 분야를 포괄하며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학술 세미나, 콜로키움, 워크숍 및 교사 연구 등을 통해 전국의 교사와 학생 행정자들에게 음악교육의 학술적 성과와 자료 공유 및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음악교육 관련 단체 및 연구자들과의 교류 협정을 확충해 K-pop, K-class와 함께 K-음악교육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김영근 송학건설 대표 장남, 부안 고향사랑 고액기부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송학건설 김영근 대표의 장남인 김익찬씨가 최근 부안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부친인 ㈜송학건설 김영근 대표는 고객감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연친화적인 건축철학과 인간존중이 담긴 정도경영을 통해 사회에서 신뢰받는 기업, 모범적인 기업을 지향하며 각계에 온정을 펼치는 등 기부양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김 대표의 남다른 기부정신을 이어받은 장남 김익찬씨는 평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따뜻한 민심이 있는 부안에 자주 여행을 오며 부안에 대한 사랑이 커져갔고 이에 고향사랑기부 11호의 주인공이 됐다.

또한 기부하고 받은 150만원의 답례품 '부안명품쌀 꾸러미'를 송학건설 직원들에게 선물하며 부안군의 수준 높은 답례품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평소 효자로 소문난 김씨는 "부모님의 이웃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많은 분들이 기부캠페인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에 따뜻한 마음을 전한 김익찬씨에게 감사하다"며 "부안 사랑의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종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무주 곳곳 고향사랑기부 줄이어

무주군을 찾는 고향사랑기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14일 고창군 흥덕농협 백영종 조합장이 5백만 원, 황영훈 세무사가 2백만 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고창군 흥덕농협 백영종 조합장은 "무주농협과의 인연으로 무주군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게 됐다"라며 "무주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잘 전달이 돼서 무주가 발전하고 무주군민이 보다 행복해지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황영훈 세무사는 "저를 낳고 기른 무주,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무주에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되고픈 마음이 크다"라며 "마을세무사로 재능기부를 하며 주민 분들에게 도움도 드리고 이번에는 고향사랑기부도 하게 돼 흐뭇하다"고 말했다.

고향이 무주군 무풍면인 황영훈 세무사는 진주 지역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세무사로, 2016년부터는 무주군에서 주민들의 세무 상담(무료)을 돕는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을 담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국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해 기부금을 납부하거나 '고향사랑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무주군은 대학철육수수를 비롯해 천마 가공품과 별초대행서비스 빈대떡이 신비탕사 등 47종의 다양한 담례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내 소외계층에게 농산물꾸러미를 선물할 수도 있도록 포인트 기부하기 상품도 준비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가족 돌봄 청년 힘내요!”

롯데백화점 전주점, 전주시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위한 성금 500만원 후원

롯데백화점 전주점(지점장 강정구)이 가족을 부양하거나 간병하는 가족돌봄청년들의 정서지원을 돕기 위해 14일 전주시를 찾아 가족돌봄청년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 원을 후원했다.

'가족돌봄청년'은 보호자의 장애·질병으로 인해 가족을 부양 또는 간병하는 등 가족 돌봄에 매여있는 청년(13세~34세)으로, 전주시는 현재 30여 명에게 가사 지원 및 심리 정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전주점은 매월 100만 원씩 5개월 동안 이들 청년들의 정서지원을 위해 성금을 정기 후원한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가족 돌봄 청년이 힘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공연 관람과 문화체험 등을 통해 심과 힐링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정구 롯데백화점 전주점 지점장은 "가족의 간병과 생계 부담을 안고 있는 청년들이 혼자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휴식을 통한 치료로 일상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 돌봄에 매여있는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후원을 결정해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어려운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제4회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쌀콘서트 개최

제4회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쌀콘서트가 지난 13일 전북 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영세 장애인과 고령층에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위안은 물론 쌀을 제공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게하고 삶에 풍요로움을 주기 위해 열리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쌀 콘서트는 소풍문화예술봉사단(단장 김연경)이 주최하고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단장 이수정)이 주관했다.

행사에서는 진행석 전북도의회 의원과 김희수 전봉도의회 의원, 이남숙 전주시의회 의원, 임병오 전 전주시의회 의원, 김연경 소풍문화예술봉사단장, 김양욱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 이영재 전주장애인단체연합회장, 이수정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장 등 내빈들과 도내 장애인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장애인 쌀 전달식과 공연으로 구성됐다. 쌀 전달식에서 장애인 대표로 참석한 김양욱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은 진행석 전북도의회와 김연경 소풍문화예술봉사단장으로부터 쌀80포대, 전복죽, 28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등을 전달받았다.



공연에서는 동방불패(고고정구), 아시페릴리, 가수 송희숙·이수정·김영애·김영식·민성아·김현·성태이·최현아·리영식 등이 무대 위에 올라 장애인들을 즐겁게 해줬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 민원실 근무직원 친절교육 실시

남원시가 14일 시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남원시청 민원실 내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6월 친절교육 강사는 이미선 남원시의회의 부의장으로 의정 활동 중 시민들과 소통했던 진솔한 경험을 전하며 민원실 직원들을 격려해 주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미선 부의장은 "자신을 돌보며 자신에게 친절해야 민원인들에게 미소도 지어지고 인사도 하게 된다"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감, 책임감이 바로 서야 민원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내야 시민들에게는 행복하고 편안한 관공서의 이미지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남원시수회총연선터 수회총연사로 활동했던 이미선 부의장이 청각장애인 방문 시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화 '인형하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를 가르쳐주어 직원들이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친절교육이 되었다.



한편 남원시는 민원인과 직원이 함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민 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구강보건의 날 '치카치카 충치소동' 공연

순창군은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14일 순창 향토 회관에서 인형극 '치카치카 충치소동'을 공연을 개최했다.

구강보건의 날은 국민의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6세에서 나오는 영구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6월 9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보건위원회는 구강보건 주간(6월9일~15일)에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2023년 구강보건의 날 슬로건 '다시 찾은 건강미소' 함께 하는 구강관리'에 맞춰 올바른 치아관리를 통해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치아의 소중함을 주제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22곳 아동 및 교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연을 재개한 만큼, 신비한 레이저쇼,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호원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 노동법 교육

호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13일 산학협력단 2층 세미나실에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교육을 전문 노무사의 강의로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노동관련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노동법에 관한 근로계약,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등이다.

교육 후에는 노무사의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져 참석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장은성 기자

무주재향경우회, 불법마약류 유통근절 홍보 캠페인

무주재향경우회(회장 황경택)는 최근 불법마약류 사범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지난 14일 무주리조트 및 무주읍 일원에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상대로 불법마약류 유통근절 및 마약사범신고 전단지 배포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경택 경우회장은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마약없는 선진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남원시청소년문화의 집, 30일의 기적 첫 활동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관장 서대현)은 지난 5월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문화에 대해 배우고 누구나 동참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문화 운동 프로그램 '30일의 기적 첫 번째' 활동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엘레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잔반 제로 챌린지 △텀블러 사용하기 △핸드폰 내려놓고 독서하기 등 총 20개의 환경 미션을 30일 동안 매일 실행하고 인증하는 활동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실천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과 소중함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마지막 환경미션으로 6월10일~11일(2일) 참여자들이 모여 환경보호 활동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남원여중 및 관하유원 주변 일대에서의 '줍깅'을 끝으로 청소년 환경지킴이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청소년문화의집 서대현 관장은 "지역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하며, 건강한 환경문화 확산을 위해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이은숙 옥산석물 대표, 김제 고향사랑 최고액 기탁

출향인 이은숙 대표는 지난 6월 13일 김제시를 찾아 고향사랑기부금의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

김제시 백구면 출신인 이은숙 옥산석물 대표는 안산시에 본사를 두고 건설용 석제품 제조와 석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운영 중이며 제2회 대한민국 중소기업 혁신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여성 기업인이다.

이날 이 대표는 고향사랑기부를 마치고 "미래세대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지역의 어르신들은 걱정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내 고향 김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고향사랑기부로 표현하여 주신 이은숙 대표께 감사드리며, 김제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헛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

순창경찰, 고장난 자연부락 방법용 CCTV 지원

순창경찰서(서장 권미자) 생활안전계(지치경찰사무)는 순창군 마을방법용 CCTV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자 순창군의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순창군과 협업체고장 난 자연부락 방법용 CCTV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전 조례에는 마을 방법용 CCTV 유지·관리를 마을에서 부담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 수리 비용 부담으로 각 마을에서 고장 등으로 작동이 원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마을 방법용 CCTV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어 주민 안전확보에 기여하게 됐다.

현재 순창군의 총 312개 자연부락 중 방법용 CCTV설치는 1,161대로 이중 약 10% 정도가 고장으로 미작동 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농촌내 절도 예방·검거 및 각종 사건 사고 시 CCTV 방범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와 협업 정기적으로 확인 시설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순창=이양원기자

농협 군산시지부, 사랑의 장학금 전달

군산시는 NH농협 군산시지부(지부장 최승용)가 14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 13명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NH농협 군산시지부는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7명에게 1인당 20만원, 중학생 4명에게 1인당 25만원, 고등학생 2명에게는 1인당 3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전달식에는 최승용 지부장을 포함한 초·중·고 학생 대표 각 1인이 참석했다. 최승용 지부장은 "청소년들이 장학금 지원을 통해 밝은 꿈을 키워 나가며 군산지역에 도움이 되는 큰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군산=김필근 기자